

도시사회의 우정론*

신 승 원**

목 차

| | |
|-----------------|---------------------|
| I. 우정과 도시 | III. 도시에서 우정을 재발견하기 |
| II. 르페브르 도시론 읽기 | IV. 나가며 |

[초록]

이 연구는 르페브르 도시론이 시사하는 우정의 의미를 고찰한다. 르페브르 도시론은 해방적 도시론이다. 르페브르는 도시사회의 이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간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체계의 억압에 맞서고자 한다. 그 핵심은 공간사용자들의 일상적 실천에 있다. 필자는 이 실천의 방식을 도시인의 우정과 연관지어 해석하고자 했다. 르페브르 도시론은 공간적 차원에서 우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로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발적으로 탄생하는, 경계넘기로서 우정, 교란자로서 우정을 발견하게 해 준다. 또한 르페브르의 논의는 자율적 개인의 이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체험으로서 우정의 의미와 이에 수반되는 공간적 역량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공간적 역량은 공간사용자들의 관계가 길들여지거나 도구화되지 않게 하는 역량으로서, 우정을 삶의 양식으로 추구하는 기반이다.

주제어 : 도시론, 르페브르, 우정, 도시사회, 공간적 역량

I. 우정과 도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대면 관계가 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19S1A5B5A07089743)

** 서울시립대 철학과 강사. raputer@hanmail.net

축되면서, 고립과 단절이 발생했고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었다. 외로움의 문제는 대체로 관계에 실패한 개개인의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 가령 OECD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는 가족 외에 의존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의 존재를 묻는 항목이 빠지지 않고 수록되고 있으며(OECD, 2017; 2020)¹, 영국에서는 외로움의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부처가 신설되기도 했다.²

외로움의 확산은 사회에서 ‘우정’의 영토가 축소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외로움이 주는 고통은 서로 의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 곧 친구와 이웃이 사라지는 것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사라졌을 때 개개인을 물질적·비물질적으로 지지하는 힘 또한 사라진다는 데 있다(Hertz, 2021)³. 즉 사회적으로 우정이 결핍되고 있는 상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싼 이러한 지원의 강도와 스케일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는 관계 부재가 낳는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소득과 지위가 낮을수록 고립과 단절의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은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차원에서 우정의 의미에 접근하려는 시도로서, 오늘날 우정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변형되고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 도시에 주목한다. 왜 도시인가? 일찍이 짐멜(Georg Simmel)은 도시가 현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천임을 간파했다(Simmel, 2005, 53). 그에 따르면 도시는 광범한 영향력으로 우리 삶과 정체성에 뿌리 내렸다. 설령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 영향력에서 면제될 수 없다. 이는 도시의 영향력이 물리적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러한 중요성은 20세기 이후, 도시를 하나의 ‘문제틀’로 인식하는 새로운 방

¹ 한국은 2017년 조사에서 조사대상국 가운데 의존할 만한 인간관계가 부재하다고 응답한 비율(75.9%)이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 같은 물음에 대한 응답 비율(81%)은 조사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인 91%와는 차이가 있다.

² 영국에서는 “연결된 사회를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범정부 종합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사회적 고독을 담당하는 외로움부 장관직”이 신설되었다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121.html).

³ 노리나 허츠(Noreena Hertz)는 외로움을 내면의 특정 국면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한정시키던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허츠의 이러한 주장은 외로움이 사회문화적·경제적 배제의 상태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법론과 분야들을 탄생시켰다. 간단히 말해 도시가 문제들이 된다는 것은 도시를 사태의 단순한 배경이나 관계항이 아닌, 사태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배역이자 계기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정을 둘러싼 맥락들이 이 문제들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면, 우정의 문제는 하나의 도시문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정이 형성되는 과정의 고유한 특징 또한 도시와 우정의 연관성에 힘을 신는다. 우리가 타자와 맺는 관계는 '생득관계(asccribed relationship)'와 '성취관계(achieved relationship)'로 나뉘는데, 우정은 후자에 해당한다. 혈연 가족이나 친척처럼 그 기원에 관여할 수 없는 관계와 달리, 성취관계는 일정 부분 선택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한다(Konstan, 1997:1).. 물론 이 선택이 무한정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형성에는 필연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계급·신분 같은 요소들의 영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그 본질상 갖가지 조건들에 의해 제약된 관계의 성취이며, 도시는 우정을 둘러싼 이러한 제약들에 접근하는 하나의 경로가 된다. 문제는 도시의 인간관계는 황폐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극단에 치달은 성과 경쟁으로 타자에 대한 불관용이 확산된다거나, 인간관계에 대한 회피와 비관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도시의 변영이 우정의 쇠퇴를 이끄는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낳는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향 또한 하나의 중요한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 우정의 연관성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관성을 새롭게 해명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이에 필자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론을 접근경로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르페브르의 논의가 기반하고 있는 '공간적' 문제의식이 도시와 우정의 관계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⁴ 르페브르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펴낸 저작들에서 자본주의적 소유 논리가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인간관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⁵ 그

⁴ 르페브르 도시론의 고유성은 공간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에 있다. 르페브르는 모든 공간이 사회적인 것이며, 공간과 그 사용자가 서로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고 말한다(Lefebvre, 2011).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도시 공간은 도시의 인간관계에 외재하는 불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양한 양상 속에 깊숙이 개입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⁵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르페브르의 논의는 이 시기에 나온 주요 저작들인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혁

에 따르면 소유 논리는 도시 구성원을 양극화하고, 이들을 공간 기획에서 배제함으로써 도시를 ‘분리’와 ‘소외’의 공간으로 만든다.

대도시는 오염과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질병으로 악덕에 빠져 있다. 도시적 소외는 다른 모든 형태의 소외를 포함하고 영속시킨다. 분리가 일상화된다. (...) 만일 사회적 관계와 공간 사이에, 장소와 인간 그룹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가 결속을 구축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는 공간의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Lefebvre 1970:124-5).

분리와 격리는 관계를 파괴한다. 그것들은 전체주의적인 질서를 구축하며, (...) 도시적인 것의 파괴를 겨냥한다(Lefebvre 1970:178).

인용문에서 언급한 소외나 분리, 격리의 상태는 공간적 차원의 배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르페브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구조 변화는 도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하는 것으로, 르페브르는 도시공간의 운용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급진적 공간정치를 통해 이 과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논문 제목의 ‘도시사회(la société urbaine)’는 르페브르의 이러한 구상이 도달하려는 비전이다.

그렇다면 르페브르의 논의에서 도시 구성원들의 관계는 어떻게 다루어지며,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아가 이러한 우정은 도시사회로의 이행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것이 르페브르 도시론을 경유해 이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물음들이다. 비록 우정을 직접 주제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결합하는 르페브르의 접근 방식은 우정의 탐구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르페브르 도시론은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우정의 공간적 차원에 다가가게 해 준다. 먼저 다음 장에서 르페브르 도시론 전반을 개관하고, 이어서 그의 논의에 내재된 우정론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명』, 『공간의 생산』를 바탕으로 한다.

II. 르페브르 도시론 읽기

이 장에서는 세 가지 항목을 들어 르페브르 도시론의 윤곽을 그려 보이고자 한다. ‘도시혁명’에서 르페브르 도시론이 제시하는 역사적 전망과 그 원리를 드러내고(①), 다음으로 도시혁명의 주체로서 ‘공간사용자’의 실천이 지닌 고유성을 살핀다(②). 마지막으로 ‘도시적인 것’을 통해 도시의 일상생활에 내재한 해방적 원리를 다룬다(③)

① 도시혁명

르페브르 도시론은 자본주의가 도시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통찰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공간기획이 도시공간을 자본주의적인 상품 생산의 질서에 귀속시킴으로써 소외와 분열이 양산된다. 르페브르는 이를 저지하는 길이 도시 구성원들의 권리 주장과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본다. 『도시에 대한 권리(droit à la ville)』는 이러한 입장이 본격화된 첫 저작으로, 여기에서 르페브르는 도시공간이 집합적으로 생산되는 ‘작품’(œuvre)이며, 누구라도 제한없이 도시공간을 향유하고, 그것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Lefebvre, 2009:2).

르페브르의 이러한 입장에는 사회 문제의 ‘중심성(centralité) 이동’이 함축되어 있다. 르페브르는 산업화가 “우리 시대를 반성하는 출발점”이긴 하지만, ‘산업화’의 부정성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문제의 변화된 성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Lefebvre, 2009:1). 그 주된 이유는 산업화의 틀이 도시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얽힘과 변화과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르페브르는 산업적 문제들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문제들로 전환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도시혁명(La révolution urbaine)』에서 보다 체계화된 역사적 전망으로 다듬어지는데, 그 핵심은 새로운 단계의 도시화가 도래한다는 데 있다. 르페브르는 산업화 이후에 도래하게 되는 새로운 단계의 도시화를 사회의 ‘완전한’ 도시화로,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가 구현하는 사회를 ‘도시사회’(société urbaine)로 규정한다.

우리는 하나의 가설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완전한 도시화(l'urbanisation complète de la société)이며, (...) 우리는 완전한 도시화로 귀결된 사회를 “도시사회”로 부른다. 현재 이것은 잠재적인(virtuelle) 상태에 있으며, 미래에 현실화될(réelle) 것이다(Lefebvre, 1970:7).

‘사회적 완전한 도시화’란 산업적 생산에 부여되었던 사회적 과정의 중심성이 도시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⁶ 이 변화는 ‘패러다임 교체’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배균, 2020:156). 그러니까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동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사회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도시사회의 패러다임에 의해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다. 르페브르는 도시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장기간의 과정을 ‘도시혁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진전시키는 동력원으로서 도시 구성원, 즉 공간의 실질적 ‘사용자’들(usagers)을 강조한다.

곧 르페브르가 말하는 도시사회는 이러한 공간사용자들의 실천이 전면화되고, 그것이 도시공간을 운용하는 주도적인 원리가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그것은 도시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만능열쇠라기보다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의 주체,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공간사용자

공간사용자라는 표현은 이들이 단순히 공간을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이들은 맹목화된 ‘도시주의(l'urbanism)’와 대결한다. 맹목화된 도시

⁶ 르페브르는 도시가 자본주의가 위기를 돌파하고 생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중심성의 이동이 촉발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본의 ‘순환’ 형태에서 나타나는 변환과 결부되어 있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일반적 축적 형식을 형성하는 자본의 1차 순환은 축적의 일반 형식을 형성하며, 이 순환이 과잉축적 상태에 빠져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이 초래된다. 자본의 2차 순환, 즉 도시 공간에 대한 투자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된다(Lefebvre, 1976:21; 1970:212).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르페브르의 이러한 주장을 ‘건조환경(the built environment)’에 대한 자본의 투입 과정으로 정교화한다. 하비에 따르면 자본 투자를 건조환경에 대한 투자로 돌림으로써 첫 번째 순환(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과잉 축적 위기가 두 번째 순환(도시 부문)으로 전이되며, 이것이 위기 국면 속에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효과를 낳는다(Harvey, 1996:89-98). 르페브르에 따르면 순환 형식의 이러한 변동은 도시 구성원이 공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스스로를 공간 생산의 주체로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주의란 도시공간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전문가주의를 앞세워 하향식으로 주입되는 도시계획적 접근을 의미한다(Lefebvre, 1970:80-1). 르페브르는 도시사회로의 이행에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해 나간 과정이 얽혀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적 접근이 강화된다고 본다. 그것은 도시가 산업적 이슈를 넘어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지만, 여기에는 공간을 성장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산업화적 틀의 영향이 잔존해 있다. 르페브르는 이 잔재들을 극복하고, 교정하기 위한 실천의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a) 장벽과 바리케이드 부수기. 그것들은 도시적 장(le champ urbain)으로 가는 경로를 막고 이 장이 (특히 양적 성장에) 맹목적인-맹목화된 상태에 머물게 한다.
- b) 모든 분리를 끝장내기. 분리는 사람과 사물을 끊어냄으로써 복합적인 형태의 분리를 초래한다.(…)
- c) (일상과 삶의 양식이면서 그것들을 조정하는) 도시사회에서 삶의 태도의 다원성(polyvalence)을 은폐하는(…) 장애물을 넘어서기(Lefebvre, 1970:235).

이 항목들은 공간사용자가 ‘교차적’인 인식과 실천의 주체임을 드러낸다. 도시는 다양한 갈등과 억압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즉 공간사용자는 계급, 젠더, 인종 등 복수의 사회적 정체성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에 놓이며, 각자는 그 속에서 특수한 공간적 갈등을 체험하게 된다. 르페브르는 그 양상을 크게 ‘모순’(contradiction)의 문제설정과 ‘차이’(différence)의 문제설정으로 구분한다(신승원, 2017:127-9). 먼저 공간의 모순은 공간이 희소한 상품으로 취급됨으로써 도시 구성원 다수가 공간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에 맞서는 공간사용자의 실천은 우선적으로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공간의 사용가치를 지키는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도시화의 진전은 정체성과 삶의 방식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문제를 전면화하는데, 이는 차이의 문제설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차이의 문제설정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공간 기획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Lefebvre, 2011:479-82, 530-1).

르페브르는 두 문제설정을 오가는 공간사용자들의 움직임이 총체적 변화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도약이다. 르페브르는 ‘파리코뮌’과 ‘68혁명’이 이러한 도약의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⁷ 그에 따르면 두 사건은 모두 거리에서 촉발되었으며 도시의 물리적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도시를 공동으로 전유하고 운용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여기서 르페브르가 말하는 도약은 파리코뮌과 68혁명을 사회와 경제의 ‘자주관리’ (Autogestion)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이해했다는 점과 결부되어 있다. 르페브르에게 자주관리 노선의 원칙, 그러니까 구성원이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관리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원칙은 대안적인 사회 질서의 중요한 요소였다(Brenner, 2001; 신승원, 2017). 거리는 바로 이러한 원칙이 공간사용자들의 자연스러운 연대로부터 정립되는 공간이었다. 즉 파리코뮌과 68혁명의 거리는 기성의 제도에 의해 온전히 통제되지 않는 영역이자, 공간사용자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도달할 지점을 정하는 집단적인 실험의 장이었다. 이로부터 르페브르는 체계의 억압적 힘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일상적 영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통찰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도시의 일상이 소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소외를 벗어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르페브르가 두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도시 연구에 끌어들이는 것은 일상적 영역이 지닌 이러한 잠재력 때문이다. 르페브르는 이 잠재력을 ‘도시적인 것(l’urbain)’으로 명명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일상생활이 급진적 실천들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③ 도시적인 것

르페브르는 ‘도시적인 것’을 물리적인 도시 공간을 뜻하는 ‘도시’(ville)와 구분하면서, 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Lefebvre, 1970:64).⁸ 그에 따르면 도시의 일상생활은

⁷ “1871년에 인민들은 무장했다. 전체 인민이 거리로 내려왔고, 축제와 전투(fête et bataille)에 참여했다. (...) 1871년의 3월의 인민은 1968년의 5월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내몰렸던 주변부, 외부에서 등장했다.”, “시위가 벌어진 곳은 거리였다. 거리에서 자발성이 나타났다. 곧 제도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곳 말이다. 그런 다음 이 자발성은 거리로부터 제도적 영역으로 번져나간다. 운동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도시적인 현상(phénomènes urbains)을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거리는 정치적 장소가 되었고, (...) 사회적 공간은 그 의미가 변화했다.”(Lefebvre, 1968:130. 81; Elden, 2018:259-60)

⁸ “도시(la ville)와 도시적인 것(l’urbain)의 구분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현전하는 직접적인 것이자, 실천

단순히 지정된 공간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집단적인 활동이 도시를 도시로서 성립시키며, 도시의 일상생활이 바로 그러한 활동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적인 것은 도시의 일상생활에 내재된 고유성을 포착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 범주는 도시 구성원의 의식적·무의식적 실천 가운데 드러나는 방향성이자, 해석되어야 할 문맥으로 나타난다. 즉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따라서 도시적인 것은 하나의 순수한 형식(forme pure)이다 : 그것은 마주침(rencontre)의 지점이자, 모임(rassemblement), 즉 동시성(simultanéité)의 장소이다. 이 형식에는 어떤 특수한 내용이 있진 않지만 모든 것이 이 형식으로 와서 거기에 산다. 도시적인 것은 추상이지만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립하는 구체적 추상(abstraction concrète)으로, 그것은 실천(la pratique)과 연계되어 있다 (Lefebvre, 1970:159).

가령 도시적인 것이 ‘목가적인 것’이나 ‘농촌적인 것’과 구분된다고 할 때, 이 구분은 단일한 장소나 사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들 각각을 연결하는 맥락의 식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도시적인 것은 이러한 복수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의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르페브르에게 이 형식은 독단적인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공간사용자들의 일상적 실천과 더불어 비로소 생산되고,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르페브르는 도시적인 것이 ‘구체적 추상’이라고 말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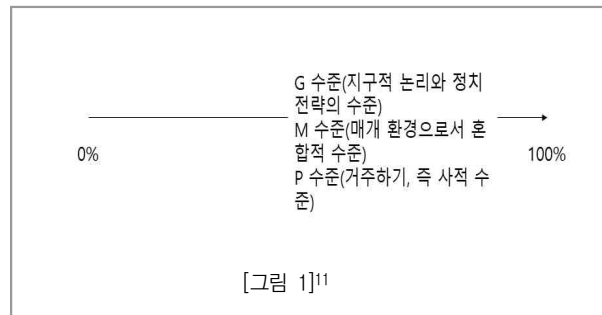
한편 도시의 일상생활은 ‘동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르페브르는 도시적인 것이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그러모으면서’(rassemble), 변형시킨다고 본다(Lefebvre, 1970:230). 곧 이 동시성은 도시공간에서 쉽없이 이루어지는 ‘마주침’과 ‘모임’의 동시성이다. 그

적·감각적 소여이며, 건축학적인 것이다. 도시적인 것은 관계들로 구성된 사회적 현실로서 사유를 통해 인식되고 해석·재해석된다.”(Lefebvre, 2009:47)

⁹ 앤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는 르페브르의 작업이 “도시(city)의 인식론을 떠나 도시적인 것(the urban)의 존재론으로 이동”을 시도한다고 평한다(Merrifield, 2015:48)

¹⁰ 김수진에 따르면 구체적 추상은 “추상적인 것이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 및 경로 안에 놓이게 되면서 구체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우발적이고도 임시적인 과정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김수진, 2017:76)

에 따르면 도시의 일상생활은 배경과 역사가 상이한 사람과 사물, 사건들이 서로 얽히고 반응하는 장이다. 이 상호작용의 양상은 다음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 그림에서 수평선은 완전한 도시화, 곧 도시사회로의 이행의 정도를, 세 가지 수준(G, M, P)은 도시공간에 개입하는 실천의 스케일들을 나타낸다. ‘거주’를 중심으로 한 사적 수준(P, privé)이 미시적인 측면이라면, 지구적인 논리와 정치적 전략의 수준(G, global)은 거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간은 이러한 이질적인 경계들을 중첩시킴으로써 혼합적 수준(M, mixte)을 형성한다. 여기서 혼합된다는 것은 도시공간에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축적’(accumulation)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다시 말해 도시공간은 이질적인 스케일들이 각인되는 곳이며, 그 흔적은 경계들이 마주치는 과정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섞이고 변화한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공간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생산·재생산하는 순환 속에 놓이게 된다. 가령 도로와 광장은 자동차와 산책객들이 붐비는 일상적 풍경을 반복하다가도, 때때로 집회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날이 밝으면 이전의 평범함을 되찾곤 하지만, 이 공간에 각인된 흔적들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어 변화의 재료가 된다. 르페브르는 바로 이러한 순환 가운데 전복적 가능성이 돌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가능성은, 앞서 언급

¹¹ Lefebvre, 1970:135 원저작에 있는 그림과 설명의 일부만 번역하여 제시한 것임.

¹² “사회적 공간은 (...) 현실적 혹은 잠재적으로 모든 것을 모은다. 따라서 잠재적으로(이 잠재성은 특정조건이 성립되면 실현되기도 한다) 축적이 가능하다.”(Lefebvre, 2011:173)

한 파리코뮌이나 68혁명과 같은 사건에서 표출되었던 것으로, 지배적 공간 질서에 도전하는 도약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르페브르는 ‘도시적인 것’을 통해 도시의 일상생활이 다양한 경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자, 공간의 총체적 변화를 매개하는 연결고리임을 포착한다. 곧 도시적인 것은 도시사회를 지향하는 급진적 실천의 기반이다.¹³ 이로부터 르페브르 도시론의 고유한 구도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일상적 실천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복적 사건들이 돌출하는, 순환과 도약의 구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도는 르페브르의 논의가 지닌 해방적 성격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논의가 낭만적인 구상일 뿐이라는 비판을 야기하기도 한다.¹⁴

필자는 도시 구성원들의 관계의 측면을 통해, 즉 도시론과 우정론의 절합을 통해 르페브르의 논의가 지닌 유효성을 보이고자 한다. 르페브르의 주장대로 일상적 실천이 도시공간의 총체적 변화를 이끄는 맹아라면, 이는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해명하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르페브르의 논의가 함축하는, 우정의 공간적 차원을 고찰할 것이다.

Ⅲ. 도시에서 우정을 재발견하기

1. 교란하는 우정

르페브르 도시론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자. 르페브르의 문제의식을 촉발한 것은 도시 구성원이 공간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상황이었다.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이러한 상황을 도시 공동체를 의미하는 시테(cité)와 물리적 도시를 의미하

¹³ 이러한 의미에서 르페브르는 ‘씨앗이자 잠재성’이라고 말한다: “역사적 도시는 관광객과, 스펙타클과 그림 같은 풍경을 갈망하는 미학을 위한 문화적 소비의 대상일 뿐이다. 역사적 도시를 열렬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던 이들에게조차 도시는 죽어버렸다. 그렇지만 도시적인 것은 지속된다. 분산되고, 소외된 현재 상태로서, 씨앗이자 잠재성으로서 지속된다.”(Lefebvre, 1970:96)

¹⁴ 도시의 일상적 충위를 강조하는 르페브르의 입장은 전통적인 계급운동의 노선과 차별화된 것이었고, 그에 게 “혁명적 낭만주의자”라는 평가가 뒤따르게 했다(최병두, 2018.:170). 르페브르 도시론을 향한 이러한 평가들 중에서 가장 날선 비판은 아마도 카스텔스(Manuel Castells)의 비판일 것이다. 카스텔스는 르페브르 도시론의 개방성과 불확정성이 도시공간의 실질적이고 엄정한 동학을 건너뛴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다(Castells, 1977:94, 115)

는 빌(ville) 사이의 ‘이혼’으로 표현한 바 있다(Sennet, 2020:96). 그에 따르면 20세기의 도시 만들기는 시테와 빌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성원들이 각자의 공간에 유폐되는 “빚장 공동체(gated community)”가 확산된다(Sennet, 2020:31). 세넷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 곧 시테를 강조하는 입장과 빌을 강조하는 입장을 구분한다.¹⁵ 르페브르는 어떤 입장에 속하는가? 공간 사용자들의 일상적 실천과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르페브르의 논의는 시테가 빌을 이끌어간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물리적인 도시 공간을 겨냥하는 빌과 달리, 시테는 도시를 구성원의 활동과 의지가 투사되는 영역으로 드러낸다. 즉 시테는 특정 공간에 대한 애착과 함께 구성원들의 관계의 측면을 부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테는 ‘정치체’로 이해될 수 있다.¹⁶ 여기에는 도시와 그 구성원이 분리불가능하며, 구성원이 도시와의 공속적 관계 속에서 비로소 공적 시민의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도시와 구성원의 공속성은 단순히 특정 공간과 개인들 사이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 소속감과 같은 관계적 자원을 수반함으로써만 구현될 수 있으며, 우정은 바로 이러한 자원을 구축하는 결정적 요소로 여겨져 왔다.

¹⁵ 세넷은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와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를 꼽고 있다(Sennet, 2020:118-36). 이들과의 비교는 르페브르의 관점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먼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하향식의 도시계획적 사고를 거부하면서 소규모 공동체의 구축을 지향한다. 즉 제이콥스의 입장은 시테를 통해 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실패에 대응하는 길은 서로에 대한 적절한 무관심과 거리두기를 통한 관계의 재구축에 있다. 르페브르는 시테의 측면에 주목하는 제이콥스의 입장이 도시계획이 유발하는 도시의 ‘자기파괴(autodestruction)적 양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녀가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Lefebvre, 2011:518) 반면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체계적인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루이스 뎀포드에게 ‘빌은 시테를 이끄는 것’이며, 그는 설계가 도시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르페브르는 뎀포드가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도시 개념에 공감하지만, 설계의 우선 순위를 강조하는 입장과는 거리를 둔다. 그러니까 르페브르에게 설계 자체보다 중요했던 것은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도시 구성원들의 관계의 차원이다. 이는 공간 사용자들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르페브르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당사자들, 즉 관계자인 사용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대신해서 발언할 것인가?(...)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전문 역량도 그럴 권리가 없다. (...) 그러므로 사용자들의 침묵은 문제가 된다. 오직 사용자들의 침묵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Lefebvre, 2011:519)

¹⁶ 시테라는 말의 기원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 혹은 정치체를 의미했던 폴리테이아(politeia)가 있다. 즉 시테는 폴리테이아의 번역어이다. 이러한 번역의 기원은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게서 발견된다. “공적 인격은 예전에 도시 국가(cité)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는 이름을 가진다.”(Rousseau, 2018:25) 발리바르(Étienne Balibar) 또한 시테를 정치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Balibar, 2010:456-7)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우정의 이러한 역할에 주목했던 대표적인 논자이다. 그는 동료 시민들 사이의 우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민적 우정’이 폴리스(polis)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그 속에는 우정이 도시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라는 대의에 제약되며, 동시에 도시문명이 이러한 우정을 통해 생존해 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Aristotle, 2017:97-8)¹⁷.

르페브르 도시론 또한 도시공간을 향한 구성원의 개입과 참여의 측면을 강조한다.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의 측면에서 그는 시민적 우정의 전통과 다른 길을 간다. 시테의 차원에 접근하는 르페브르의 고유한 관점이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대목이다.

먼저 르페브르의 논의는 우정 담론의 전통에서 좀처럼 조명되지 않았던 우정의 공간적 의미를 드러낸다. 가령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시민적 우정의 전통은 구성원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한다. 그것은 대체로 동일한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적 맥락을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앞서 살폈듯이 르페브르는 도시의 일상적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경계와 경계 사이의 마주침과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이러한 마주침 속에서 함께 경계를 나누고 서로를 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공간적 맥락은 하나로 고착될 수 없고, 변화에 개방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상대방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교류할 것인지,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있을 것인지는 모두 공간적 경계의 문제이며, 지속적인 상호 조정의 대상이다. 즉 르페브르는 도시 구성원들의 관계를 절대적인 하나의 경계 안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닌, 상호 조정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우정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특별하게 배치하는, 새로운 공간적 맥락을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정 담론에서 공간적 맥락의 이러한 유동성은 간과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수용기적’ 공간관이 있다. 수용기적 공간관은 공간을 내부의 관계와 사태들을 담

¹⁷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 “각각의 정치체제”에서 “정의가 나타나는 만큼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정의는 “삶을 함께 나누는” 정치 공동체로서 폴리스 구성원들을 통해서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폴리스에서 살아가는 자유민들이 그 삶의 의미를 폴리스의 정체성과 관계망으로부터 끌어올린다는 것을 드러낸다(Aristotle, 2011:182, 302).

는 고정불변의 담지체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슈뢰르, 2010:44). 이러한 공간관은 경계들을 절대화함으로써 우정을 한정된 경계 내부의 결속으로 협소화한다. 그에 따라 우정은 위협의 가능성을 철저히 회피하고 안전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경향과 합류하게 된다.

르페브르의 공간 개념은 수용기적 공간관의 대척점에 있다.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순환하는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다(Lefebvre, 2011)¹⁸. 이러한 공간관을 바탕으로 르페브르의 논의는 인간관계의 ‘우발적’ 측면을 조명한다. 그것은 관계가 경계들의 우발적 마주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의 기원 역시 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정은 관계의 선택 가능성이 있는 성취관계이지만, 적어도 그 최초의 장면에는 예측불가능한, 위협과 조우할 가능성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의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우발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도시공간의 각 영역들 사이의 구획이 견고해지고 경계가 삼엄해지면서, 마주침 자체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르페브르 도시론의 해석가인 메리필드(Andy Merrifield)는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는 오늘날 도시의 인간관계를 ‘비극적 친밀성’으로 특징짓는다(Merrifield, 2015:68). 그에 따르면 도시의 구성원들은 인구가 밀집된 거주지역에서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차단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폐쇄성 속에서 우정의 우발적인 기원은 점점 은폐된다. 가령 고급 아파트와 영세민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유해오던 출입구와 통행로를 분리하거나¹⁹, 아파트 규모별로 운동장에 신입생들을 줄 세우는 입학식의 모습은 우발성의 출현을 통제하는 공간기획의 모습을 보여준다.²⁰ 이러한 공간기획은 경계를 절대화함으로써 도시 구성원의 관계를 분리에 종속시킨다. 르페브르는 경계를 절대화하는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¹⁸ ‘사회적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이러한 르페브르의 공간관을 집약하는 표현이다(Lefevre, 2011; 신승원, 2017).

¹⁹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42505

²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3288

사회에서는 [경계의] 폐쇄(clôtures)가 절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적) 소유, 즉 도시, 민족, 민족국가라는 공간 안에서의 위치를 특징짓는 것은 바로 닫힌 경계선이다. 이 극단적인 경우를 차지하고, 외피로서의 모든 공간은 안과 밖을 구별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언제나 막을 통해서 투과가 가능하다(Lefebvre 2011:272. []는 필자).

르페브르에 따르면 ‘닫힌 경계선’은 사회적 단위들이 부여하는 하나의 추상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투과가능한, 상대적인 것이다. 경계들의 이러한 유동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관건은 경계를 넘어서려는 일상적 실천을 해방하는 데 있다. 메리필드는 르페브르의 논의로부터 급진적인 경계넘기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이다. 그는 2011년에 있었던 ‘월가 점령 시위’를 사례로 들면서, 이 시위가 르페브르의 구상, 즉 도시공간의 지배적 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도전을 현실화한 사건이었다고 분석한다.

그것[월가 점령 시위]은 중심지를 점령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결절점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뒤섞이고 마주침이 증척되는 결절점, 바깥으로 확산되고 발산되는 내부의 비판적 힘, (...) 소셜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 주변성은 그 자신을 중심으로 삼았으며, 이 모든 일들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졌다(Merrifield, 2015:166. []는 필자).

메리필드에 의하면 월가 점령 시위는 동료 구성원들 사이의 복수의 결절점(nod)을 통해 전복적 흐름을 증폭시켰다. 이 시위 참여자들은 특정 집단이나 정당의 지도에 따라 하나의 깃발 아래 질서정연하게 모이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의 우발적인 마주침이 마주침을 부르는 방식에 따라 응집된 힘을 만들었고, 기성의 질서와 제도를 거부하는 방향을 스스로 찾아 나갔다. 운동의 초창기에는 소수의 행동주의자들뿐이었고,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았지만, 한 달이 채 못되어서 참여자가 폭증했고,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전에 기획되거나 체계적인 전략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우발적인 마주침의 질서 자체로부터 기인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증폭시킨 사건이었다(Merrifield, 2015:153, 158-9).²¹ 메리필드가 주목한 이 장면들은 사회 운동의 변형된 문법을 암시할 뿐 아니라 도시 구성원들의 우정

이 지닌 새로운 측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도시의 폐쇄적 체계를 ‘교란’하는 우정이다.

언급했듯이 시민적 우정의 전통은 우정을 언제나 다른 큰 질서나 대의에 동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르페브르의 논의 속에서 도시 구성원들의 우정은 다른 그 무엇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발적으로 마주치고 연결하는 관계의 운동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정에는 교란자의 면모가 내재되어 있다. 교란자는 질서와 무질서를 넘나들며 소동을 벌이는 존재이다. 메리필드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점령 운동의 구성원들은 교란하는 우정의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전자적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불규칙적으로 서로를 이어나감으로써 도시의 경계와 체계를 교란했다.

즉 교란하는 우정은 도시의 폐쇄성을 넘어, 우발적이고 복수적인 교류의 지점들로 나아가려는 시도이다. 교란하는 우정의 이러한 역동성은 도시공간을 소란스러운 연결과 응집의 장소로 조명할 뿐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구축하는 경계들이 언제든 지 갱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란하는 우정은 르페브르가 전망하는 급진적 정치의 숨은 파트너가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필자는 르페브르 도시론이 시민적 우정의 전통과 구별되는 새로운 우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살폈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탄생하는, 경계 넘기로서 우정, 교란자로서 우정이다. 이러한 우정의 양상은 ‘원자적 개인화’의 흐름과 구분되어야 한다. 원자적 개인화는 우정을 여타의 사회적 관계들과 완전히 분리하고, 철저히 사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킨다. 필자는 이 사고방식을 ‘순수한 우정’의 신화로 부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이 신화에 대한 르페브르 도시론의 관점을 드러낼 것이다.

2. ‘순수한 우정’의 신화를 넘어서 : 우정과 작품

역사적으로 시민적 우정의 전통이 쇠퇴하는 과정은 그 반대급부로, 우정이 자율적 개인들의 관계이자 이러한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사고방식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 뒤따르는 사회적인 제약을 자율적 개인

²¹ 메리필드에 따르면 이러한 “마주침은 어떤 신성한 마스터플랜도, 그 어떤 신성한 주체도 없는 과정”이다 (Merrifield, 2015:153)

인 ‘나’의 관점으로 환원함으로써 우정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개인의 역량을 신비화한다. 만약 도시가 자율적 개인들의 영역이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무한히 풍부해질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명백히 권력관계에 있다고 할, 교수와 학생, 사장과 직원도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²²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율적 개인과 그들이 형성하는 우정의 영역을 체계의 지배적 힘이 미치지 못하는 외부이자 일종의 진공상태처럼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를 때, 우정은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상호작용의 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며, 그곳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가부장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상하관계가 침투할 수 없는 곳이 된다(김현경, 2015:178-9). 우정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도시의 현실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양상과 동떨어져 있다. 설령 체계에 의해 식민화되지 않는 일상생활의 영역을 가정하더라도, 이 영역이 완전히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상생활의 공간은 다양한 전통이나 관습, 문화적 차이에 영향을 받는 곳이며 그로 인한 다양한 얽힘과 충돌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 개인의 이상에 기반하는 순수한 우정의 신화는 관계의 구체성을 떠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구체성이 결여된 이러한 사고방식은 ‘투명성의 환상(illusion de la transparence)’에 사로잡혀 있다(Lefebvre, 2011:72). 르페브르는 이 투명성이 오히려 ‘혼탁한(trouble)’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투명하다는 믿음이 사회적 공간과 얽히는 인간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왜곡하기 때문이다(Lefebvre, 1970:62). 즉 투명성의 환상은 인간관계를 둘러싼 구체성을 우정 자체와 분리해낸다.

구체성과 분리된 다음에 우정에 남겨지는 것은 자율적 개인의 의지뿐이다. 순수한 우정의 환상 속에서 이 의지는 진정한 우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며, 이로 인해 우정을 순수한 ‘정신적’ 경험으로 여기는 경향이 확산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르페브르의 논의에서 인간관계와 우정은 결코 순수한 정신적 경험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도시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 관계를 맺는 것은 몸을 경유하는, 공간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만남의 시공간, 사물들, 사건들은 모두 신

²² “현대 사회는 우리가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사장이든 말단 사원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사람으로서 서로 평등하다고 가르친다.” 즉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에 바탕해 “모두가 모두에 대해 우정의 가능성”을 열려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김현경, 2015:174, 186)

체와 연결됨으로써 인간관계의 의미를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공간사용자는 오직 신체적 존재인 한에서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는 주체일 수 있으며, 인간관계는 다시 그의 공간적 체험의 지닌 질적 고유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말하자면, 공간적 체험이 결여된, 순수한 진공상태에서의 우정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체험으로서 우정의 면모는 순수한 우정의 신화가 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지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인간관계가 ‘역량’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몸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그에 부합하는 활동의 역량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의 실현이 뒤따른다(신혜란, 2021).²³ 예컨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소를 마련하거나 만남의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역량,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을 꾸미고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공간적 역량과 관계적 역량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역량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에 있다. 이 역량이 결여된 자들은 도시공간에서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르페브르 도시론은 공간적 역량의 문제를 전면화한다.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는 르페브르가 제출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주변화되고, 가장 저임금을 받고, 가장 불안정한”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Marcuse, 2009:191). 이는 도시공간의 운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공간적 역량이 결핍된 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 기획의 배타성, 폐쇄성에 저항해야 한다는 르페브르의 일관된 주장은 결국 공간적 역량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예로 들면, 이것은 공간적 역량의 불균등과 결부된 사안으로, 그 출발점은 사안의 당사자들을 공간 기획의 동등한 참여자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동등한 참여의 문제와 관련해 르페브르는 ‘시민’(citoyen)의 관점과 대비되는 ‘도시인’(citadin)의 관점을 강조한다(Lefebvre, 2009:40). 시민이 표준적인 거주자로 등록되고 공적으로 승인된 이들이라면, 도시인은 도시를 터전으로

²³ 공간적 역량은 센(Amartya Sen)의 역량 개념을 르페브르의 도시론과 결합함으로써 제출된 것이다. 신혜란은 공간적 역량을 공간적 차원에서 가용적 기회와 자유로 규정하고 크게 ‘장소 만들기’, ‘공간 이용’, ‘이동’의 역량이 여기에 속한다고 설명한다(신혜란, 2021:289-93; Sen, 2013).

삼으며, 교차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르페브르에게 이러한 도시인의 관점을 배제한 공간적 실천은 노예, 이방인, 여성을 배제해왔던 고대적 도시의 질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Lefebvre, 2009:40). 즉 르페브르 도시론은 도시인의 관점을 옹호함으로써 공간적 역량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도전한다.

한편 공간적 역량의 고려는 작품으로서 도시 개념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르페브르는 도시가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작품이며, 이러한 작품이야말로 도시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해왔다.²⁴ 그에 따르면 과거에 이 작품을 주도한 이들은 특정 집단에 한정되었다. 가령 서구 중세에 도시를 작품으로 만든 이들은 상인과 은행가 집단이었다(Lefebvre, 2009:44-5). 그러나 르페브르의 논의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도시사회의 비전은 도시를 모든 도시인들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의 작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르페브르는 작품이 “독특하고, 무한히 소중하며, 대체할 수 없는 것”, ‘사용가치’와 결부된 것이라고 말한다(Lefebvre, 1970:202). 그에 따르면 작품으로서 도시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고 실현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르페브르는 이 몫의 실현이 구성원들이 프로그래밍된 일상에서 벗어나 그들 삶의 양식(le style)을 추구해나가는 것, 곧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혁명은 단순히 국가나 재산관계만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조한다. 더 이상 수단을 목표로 삼지 말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말이 가능해진다. 일상이 작품이 되게 하라! (...) ‘작품’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예술적 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조건들을 재생산하고, 자신의 자연과 조건들(육체·욕망·시간·공간)을 전유하고,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지칭한다(Lefebvre, 2005:355-6)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라는 작품의 창조는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추구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의 창조로 이해될 수 있다. 공간적 역량은 이 조건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우정을 삶의 양식의 한 부분으로 추구할 수

²⁴ “도시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필요, 즉 도시사회에 대한 필요를 향해 정향되어있는 계획을 요구한다.(...) 이러한 수단들을 작품 속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정치적 힘 또한 필수적이다.”(Lefebvre, 2009:132)

있게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르페브르의 논의는 이러한 역량의 문제에서 간과되기 쉬운 한 가지 조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조건은 도시와 도시인 사이의 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도시라는 작품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수단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르페브르에게 도시라는 작품은 “예술은 본 뜻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보았을 때 예술가가 만든 개별 작품과는 구분되는 것이다(Lefebvre, 2011:591).²⁵ 예술가의 활동과 작품이 수단과 목적의 구도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도시인의 삶과 도시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까닭이다. 즉 작품으로서 도시는 도시인의 삶을 통해 구현되지만, 각각의 삶이 어떤 생산적 가치를 위한 도구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화의 경향은 도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를테면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극소수에게 집중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구성원들의 삶과 역량을 자원으로 동원한 결과로 볼 수 있다(서영표, 2021:29).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운동 또한 당면 과제를 위해, 혹은 제도권 정치의 권력 획득을 위해 구성원의 결속을 수단화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²⁶

다만 도구화의 폐해를 지적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피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를테면 지배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참여와 연대를 독려해야 할 때조차도 구성원들의 관계와 역량이 효용성의 측면에서 재단되고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료 구성원들 사이의 우정으로부터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을 길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고난도의 줄타기에 비유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시인의 공간적 역량과 우정은 이 줄타기 가운데 좀 더 풍부한 함축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도시로 끊임없이 모이고 때때로 뭉치지만, 이들의 관계와 공간적 역량은 단지 단합되고 총화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될 수 없다. 르페브

²⁵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라는 작품은 사회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 차원은 “개체를 위해, 개체에 의해 고립된 물체의 차원”과 구분되어야 한다(Lefebvre, 2011:591).

²⁶ 많은 사회 운동에서 도시 구성원들의 응집을 조직하는 방식은 대체로 2단계 전략에 의존해 왔다. 2단계 전략이란 첫 단계에서 제도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을 설득해 이들의 단합을 유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획득된 권력을 통해 일상적 삶의 차원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진태원, 2020:121-3). 르페브르의 논의에서 작품으로서 도시는 도시인들의 삶의 수단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이러한 단계적 전략과 차별화된다.

르의 관점에 따르면 이 관계와 역량은 언제든지 탈주하고 교란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공간적 역량은 단순히 움직일 수 있음이나, 점유할 수 있음을 넘어, 관계를 수단화하고 길들이는 힘에서 벗어나려는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역량이 없다면 우정은 우발적으로 탄생할 수도, 체계를 교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요컨대 르페브르 도시론은 자율적 개인의 이상에 기반한 순수한 우정의 신화를 넘어, 우정을 구체적인 공간적 체험의 문제로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지배에 길들여지거나 도구화되지 않는, 도시인의 관계 구축을 겨냥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물론 길들임과 도구화를 벗어나는 관계의 구현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현재적이다. 오늘날 도시의 인간관계는 자율적 개인의 환상과 공간 기획의 폐쇄성 사이에 놓여있다. 한쪽에서 자율적 개인과 순수한 우정의 신화가 우정의 무제약성을 유포한다면 또 다른 쪽에서는 위계화된 도시공간이 거주와 이동, 교류의 장벽을 만듦으로써 공간적 역량을 극도로 위축시킨다. 르페브르의 논의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진진과 역진'을 거듭할 것을 요청한다.²⁷ 그것은 자율적 개인의 환상을 저지하면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우정과 삶의 양식에 대한 지향을 지속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공간적 역량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공간적 역량은 관계의 모험을 시작하는 조건이고,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은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IV. 나가며

이 연구는 르페브르 도시론이 함축하는 우정론의 면모를 살폈다. 르페브르 도시론은 해방적 도시론이다. 르페브르는 도시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시공간에 투사되는 체계의 억압적 힘, 즉 산업화의 잔재와 맹목적 도시주의에 맞서고자 한다. 그 핵심은 공간사용자들의 일상적 실천에 있다. 필자는 이 실천의 방식을 도시인의 우정과 연관지어 해석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르페브르 도시론은 공

²⁷ 르페브르는 자신의 방법론을 '역진적-진진적(régressive-progressive)'인 것이라고 부른다(Lefebvre, 2011:123) 그것은 현재적 조건 하에서 변화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새로운 인식과 실천적 전망으로 피드백되는 방식을 의미한다(신승원, 2017:127-9)

간적 차원에서 우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로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발적으로 탄생하는, 경계넘기로서 우정, 교란자로서 우정을 발견하게 해 준다. 또한 르페브르의 논의는 자율적 개인의 이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체험으로서 우정의 의미와 이에 수반되는 공간적 역량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공간적 역량은 공간사용자들의 관계가 길들여지거나 도구화되지 않게 하는 역량으로서, 우정을 삶의 양식으로 추구하는 기반이 된다.

우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접근은 르페브르가 구상하는 도시사회의 비전을 새롭게 드러낸다. 즉 도시사회는 공간적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공간에서 우정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 거리와 광장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축제, 소셜 믹스(Social Mix)를 위한 디자인과 건축 등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획들은 여전히 관(官)을 통해, 위로부터 주입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도시사회로의 이행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인의 자발성과 결합하는, 일상생활에 스스로 뿌리내리는 시도들이 함께 필요하다. 오늘날 도시는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취약성에 둘러싸여 있다. 감염병, 기후 변화, 부동산 폭등에 이르기까지 이 취약성의 목록은 계속 늘어나며, 이것들은 모두 분리의 공간기획과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파편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할 구실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의 폐쇄적 체계에 맞서고자 했던 르페브르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존에 대한 도시인의 각성을 절실한 과제로 부각시킨다. 즉 도시인의 공존을 위한 자발적 관계의 구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은 르페브르의 논의가 남겨놓고 있는 물음이며, 우정론으로서 그의 도시론을 탐색하는 작업이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28,29}

²⁸ 르페브르 도시론은 체계의 폭력과 이에 대한 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다양한 도시의 위기나 그에 대응하는 자발성의 관계 구축을 충분히 사유했다고 하기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몸공간, 리듬, 재현공간 등 인간학적 층위에 대한 르페브르의 논의는 이러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실마리일 수 있다.

²⁹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인의 공존과 자발적 관계 구축에서 우정이 돌봄, 친밀성, 상호인정 등의 개념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 역시 르페브르 도시론과 그의 공간적 문제의식을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후속 작업을 통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진(2017). “도시혁명에 나타난 구체적 추상”.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0권 2호. 65-88.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박배균(2020). “스마트 도시론의 급진적 재구성: 르페브르의 ‘도시혁명’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사회』. 제30권 2호. 147-81.
- 서영표(2021).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불로소득 추구 ‘기회’의 평등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3호. 10-40.
- 신승원(2017).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란(2021). “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만남: 공간적 역량 개념을 매개로”. 『공간과 사회』. 제31권 3호. 272-303.
- 진태원(2020). “어들의 연대에 대하여”. 『황해문화』. 102-25.
- 최병두(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2호. 149-72.
- Aristotle.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김재홍, 강산진 역). 이제이북스.
- Aristotle. (2017) 『정치학』. (김재홍 역). 길.
- Brenner, N. (2001). State Theory in the Political Conjecture : Henri Lefebvre's 'Comments on a New State Form'. *Antipode*. 33(5). Basil Blackwell.
- Balibar, E. (2011). 『우리, 유럽의 시민들?』. (진태원 역). 후마니타스.
-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Cambridge. MIT Press.
- Elden, S. (2018). 『앙리 르페브르 이해하기:이론과 가능한 것』. (전국조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 Harvey, D. (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초의수 역). 한울.
- Hertz, N. (2021). 『고립의 시대: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 (홍정인 역). 웅진지식하우스.
- Konstan, D. (1997) *Friendship in The Classic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febvre, H. (1968). L'irruption de Nanterre au sommet. *Anthropos.*,
- Lefebvre, H. (1970). *La révolution urbaine*, Gallimard.
- Lefebvre, H. (1976). *The survival of capitalism: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Translated by F. Bryant. Allison & Busby.
- Lefebvre, H. (2000).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 Anthropos.
- Lefebvre, H.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파랑.
- Lefebvre, H. (2009). *Le droit à la ville*. Paris : Economica-Anthropos.
- Lefebvre, H.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 Malpas, J. (2014). 『장소와 경험: 철학적 지형학』. (김지혜 역). 에코리브르.

- Marcuse, P. (2009). From Critical Urban Theory to the Right to the City. *City*. Vol. 13. 185-97.
- Merrifield, A. (2015). 『마주침의 정치』. (김병화 역). 이후.
- Mumford, L. (1990). 『역사 속의 도시』. (김영기 역). 명보문화사.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Rousseau, J. J. (2018). 『사회계약론』. (김영욱 역). 후마니타스.
- Sennet, R. (2020). 『짓기와 거주하기-도시를 위한 윤리』. (김병화 역). 김영사.
- Sen, A.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역). 갈라파고스.
- Simmel, G. (2005). 『집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역). 새물결.
- Schroer, M. (2010).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 배정희 역). 에코리브르.
- Tuan, Y. F. (2020). 『공간과 장소』. (윤영호, 김미선 역). 사이.
-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121.html(검색일:2021. 11.20)
-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42505(검색일:2021.1.22.)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3288(검색일:2021.1.22.)

■ Abstract ■

Theory of Friendship in Urban Society

SEUNG-WON SHIN*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friendship implied by Lefebvre's urban theory. Urban theory of Lefebvre is a liberating urbanism. By presenting his vision of transition to urban society, Lefebvre seeks to confront the oppressive power of the system to use urban space as a tool for economic growth. The core lies in the everyday practice of space users. I tried to interpret this way of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friendship of urban dweller. According to this, Lefebvre's urban theory reveals the path to approaching the problem of friendship at the spatial level, allowing them to discover friendship as a boundary crossing and friendship as a trickster. In addition, Lefebvre's discussion is not based on the ideals of an autonomous individual, but rather on the meaning of friendship as an lived experience and the importance of spatial capability accompanying it. Spatial capability is a capability that prevents the relationship of space users from being tamed or instrumented, and serves as the basis for pursuing friendship as a style of living.

Keywords : Urban Theory, Lefebvre, Friendship, Urban Society, Spatial Capability

■ 논문투고 : 2022년 5월 11 일 논문심사: 2022년 5월 21일 - 6월 10일 게재확정: 2022년 6월 10일

* UNIVERSITY OF SEOUL